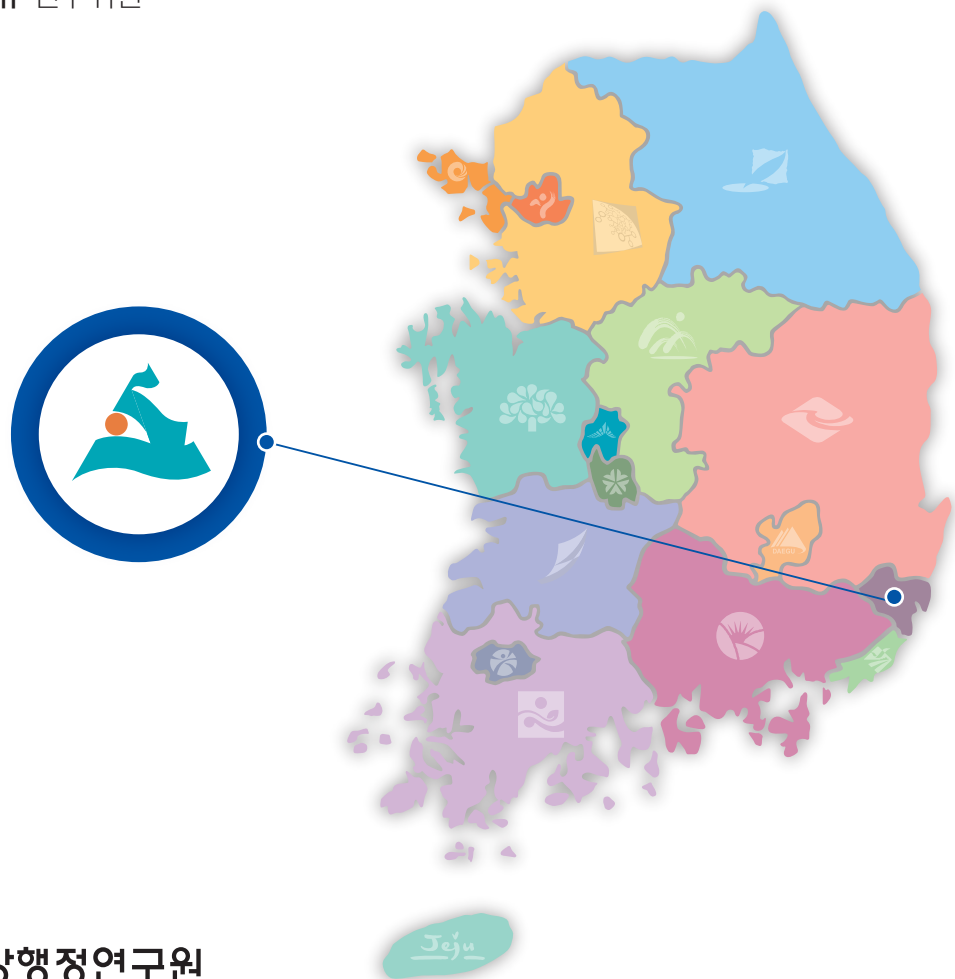


Policy ISSUE REPORT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김도형 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





I. 왜 청년정책인가

I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검토

1. 청년과 청년정책
2.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3.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 관련 제도 및 사업

III.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1. 분석의 개요
2. 분석의 결과

IV. 울산 청년정책 건의 및 제언

1. 부문별 정책 건의 : 설문 응답자 의견을 중심으로
 2. 정책 제언
-

I. 왜 청년정책인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등장

- 청년 세대는 가까운 미래를 이끌어 갈 계층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삶의 안정성이 떨어져 N포 세대, 즉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음
 - 고학력이 대부분인 청년층에게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부족하며, 그 영향으로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
 - * N포 세대란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추가), '7포'(5포에 꿈, 희망 추가)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의미
 - * 이 외에 청년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으로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 해당), '88만 원 세대'(20대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취직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88만 원'),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청년실신'(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등이 있음
- 지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
- 국가는 위와 같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을 수립·실행해오고 있음
 - 청년의 지역 유출 문제는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청년정책 수요 분석의 필요성

- 울산시도 최근 3년간 1,186명의 청년이 유출하는 등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와 창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
 - 2017년 1월에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한 해 동안 6대 전략 40개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왔음

- 그러나 청년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울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를 분석하여 2018년 울산 청년정책 사업을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I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검토

1 청년과 청년정책

청년의 개념적 정의

- 사전적 의미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
- 법·제도적 의미
 - 법·제도적 측면에서 청년이란, 특정 연령 범위에 속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하는 통계적 개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세에서 29세까지로 규정
 - *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각각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
 - *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20대 초반 청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기도 함

- 통계청도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간주
 -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청년(youth)의 연령을 15세에서 24세까지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대학 진학률과 남성의 의무군 복무 등을 고려해 15세에서 29세로 설정
- 박근혜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정책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공동 발의한 「청년기본법」상에서도 청년을 동일한 범위의 연령으로 설정
-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
 - * 서울, 세종, 경기 등의 경우도 청년 연령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
 - * 그 외 지자체별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의 범위는 개시 연령과 마감 연령이 각각 15, 18, 19세 등과 34, 39세 등으로 다양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비교(2018년 2월 현재)

단위 : 세(개)

연령의 범위				→ (세) 34 39	해당 시·도(수)
부터	까지	15	18/19		
15	34	[Bar]			서울, 울산, 세종, 경기(4)
	39	[Bar]			충북, 경북(2)
18	34	[Bar]			부산, 강원, 충남(3)
	39	[Bar]			전북, 전남(2)
19	34	[Bar]			경남, 제주(2)
	39	[Bar]			대구, 광주, 대전(3)

주 :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례 미제정에 의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청년정책의 정의

-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곧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만큼 청년의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은 학교에서 사회로, 즉 교육이나 훈련에서 직업 세계로 이동하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지고 있음
- 청년 문제에서 일자리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 복지, 문화 등 다른 분야의 문제도 상존하므로, 청년정책을 일자리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문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구조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금수저’와 ‘흙수저’로 표현되듯이 청년 세대 내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시급한 상황
-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정의
 - 광주와 대전 등 청년정책에 대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의 조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도 각기 표현만 미세하게 다를 뿐 청년정책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

2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기본 방향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으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개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최고의 복지라고 판단하여 핵심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 청년 문제도 일자리 확보, 고용 안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함

청년일자리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5%), 민간부문 청년 신규 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2017년 5천 명, 2018~20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2018년)
 - 2019년부터 훈련 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지급
 -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블라인드 채용 확대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관행 개선
- 청년일자리 기본권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청년 과학자 및 창농 지원

- 연구환경 개선
 -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 박사 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 기술 일자리 확대
 - *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 영농창업 활성화
 -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주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2022년까지 20만 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공급(준공 기준)
 -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
 - 20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 실 공급
 -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5만 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 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 명) 등

지역 역량 강화

-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청년 등 지역 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 기획·컨설팅 등 지원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2017~2018년) :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고용 안전망 구축
 -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추진,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 2단계(2019~2020년) : 공공·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산, 가사돌봄 서비스 시행,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 청년고용의무제 확산
- 3단계(2021~2022년) :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체계 구축
 -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대책 지속 보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목표 달성, 공보육·유아교육 40% 완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개편 완료

청년종합대책의 마련

- 문재인정부는 학자금 문제부터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3월 중 범정부적인 ‘청년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
 -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2018년 2월 중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
- 청년종합대책에는 노동기본권 보호, 주거 문제, 부채 문제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
- 범정부적으로 편성될 청년정책추진단은 향후 정책 연구 개발과 추진상황 점검, 피드백 반영 등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

3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 관련 제도 및 사업

조례 제정의 시·도 현황

-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시·도의 수는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16개인 것으로 파악(2018년 2월 1일 기준)
 - * 그러나 인천도 2018년 1월 18일 청년기본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심의 후 연초에 조례가 제정될 예정
- 조례의 명칭은 대부분 ‘청년기본조례’이나, 예외적으로 광주가 ‘청년정책기본조례’를, 경남이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사용
- 2015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 경북이 조례를 제정
 - 조례가 제정된 시·도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개, 2016년 6개, 2017년 5개 등으로 나타남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명칭 및 제정 시기 비교(2018년 2월 현재)

단위 : 년(월, 일.)

조례 명칭	제정 연도	해당 시·도
1. 청년기본조례	2015	• 서울(1.2.), 대구(12.30.), 경기(8.13.), 전남(7.23.)
	2016	• 대전(10.20.), 세종(12.20.), 충북(5.24.), 충남(2.22.), 제주(6.22.)
	2017	• 부산(5.31.), 울산(4.27.), 강원(11.3.), 전북(4.14.), 경북(12.28.)
2.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	• 광주(12.28.)
3. 청년발전기본조례	2016	• 경남(6.9.)

주 :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례 미제정에 의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조례 목적의 시·도 간 비교

-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조례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명시
- 조례의 목적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명시된 특별한 사항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청년 간 교류 확대 등이 있음
 - 조례의 명칭에 유일하게 ‘정책’이 사용된 광주의 경우, 그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등이 포함
 - 경북은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등도 목적에 포함
 - 충남과 전남은 해당 지역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과 함께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 외 청년도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
 -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경우 ‘청년 간 교류확대’를 유일하게 명시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목적 비교(2018년 2월 현재)

조례 목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일반 사항																
· 사회 참여	○	○	○	○	○	○	○	○	○	○	○	○	○	○	○	○
· 자립기반 형성	○	○	○	○	○	○	○	○	○	○	○	○	○	○	○	○
· 권익증진·발전	○	○	○	○	○	○	○	○	○	○	○	○	○	○	○	○
2. 특별 사항																
· 정책 개발	.	.	.	○	○	.	○	.	.
· 정책 수립·조정	○	.	.
· 지역사회 발전	.	.	.	○	○	.	○	.	.	.
· 교류 확대	○

주 :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례 미제정에 의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청년정책 분야의 시·도 간 비교

-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은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7개 분야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규정
- 5개 이하의 시·도에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의 청년정책 분야로는 창업 지원,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복지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류 확대 등이 있음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 분야의 시·도 간 비교(2018년 2월 현재)

정책 분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일반 사항																
• 청년의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
• 청년의 능력 등 개발	○	○	○	·	○	○	○	○	○	○	○	○	○	○	○	○
•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	○	○	○	○	○	○	○	○	○	○	○	○	○	○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	○	·	○	○	○	○	○	○	○	○	·	·	·	·
• 청년의 생활 안정	○	○	○	○	○	○	○	○	·	○	○	○	○	○	○	○
• 청년 문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청년의 권리 보호	○	○	○	○	○	○	○	○	○	○	○	○	○	○	○	○
2. 특별 사항																
• 청년의 창업 지원	·	·	○	○	·	·	·	·	○	·	·	○	·	○	·	·
• 청년의 부채 경감	○	·	·	○	·	·	·	·	·	·	·	·	·	·	·	·
• 청년의 건강권 보장	·	·	·	·	○	·	·	·	·	·	·	○	·	·	·	·
• 청년의 복지 증진	·	·	·	○	·	·	·	·	·	·	·	○	·	·	·	·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	·	·	·	·	·	·	·	·	·	·	·	○	·	·
• 청년의 교류 확대	·	·	·	·	·	·	·	·	·	·	·	·	·	○	·	○

주 :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례 미제정에 의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시·도별 청년정책 담당 부서

- 조례 제정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은 2015년 이후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2016년부터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설치해 온 것으로 판단
 - 과 단위의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설치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모두 5개로서,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청년정책과’를 두고 이 부서 소속으로 2~3개의 팀이 편성
 - * 충북은 청년정책담당관에 청년일자리팀을 편성해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고용 업무까지 담당
 - 팀 단위의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둔 시·도는 부산,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모두 7개로, 대부분 ‘청년정책팀’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상위 조직인 실·국은 기획, 자치, 산업, 가족 등 다양한 부서에 편성
-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일자리팀을 고용·노동 부서에 두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이며, 이들 대부분이 위와서와 같이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음
 - 단, 강원도의 경우 청년정책과 고용 업무 조직이 이원화되지 않고 일자리 부서만 존재
 - 경북은 전반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업무가 팀 단위로 이원화되었으나, 과 단위는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일원화되었으며 상위 조직인 실·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에 편성

시·도별 청년정책 담당 부서 현황(2018년 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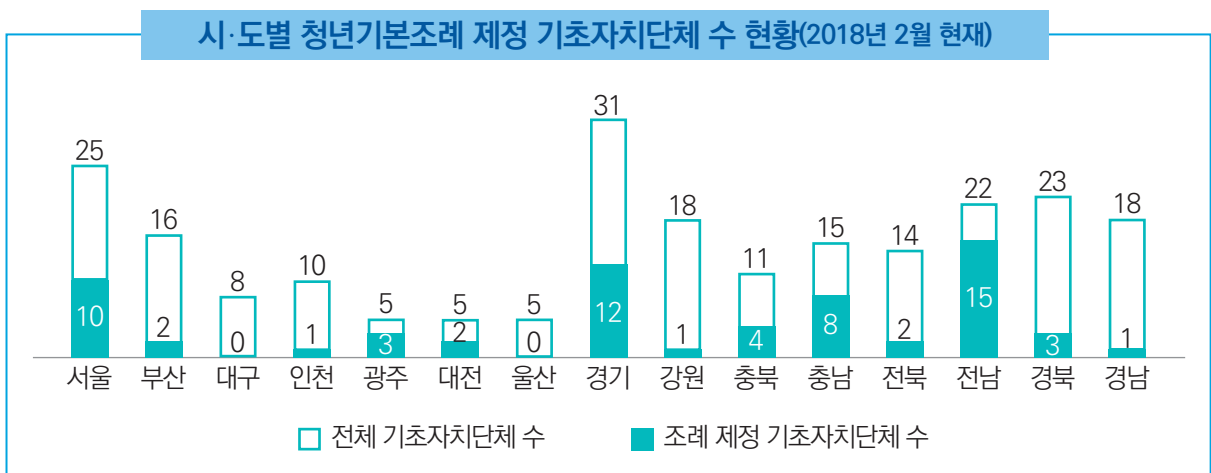
시·도	담당 부서		
	실·국·본부	과·관·단	팀
1. 서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6), 청년활동지원팀(3), 청년공간지원팀(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청년일자리팀(5)
2. 부산	시정혁신본부	비전추진단	• 청년정책팀(4)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 청년취업지원팀(5)

시·도	담당부서		
	실·국·본부	과·관·단	팀
3. 대구	시민행복국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5), 청년소통팀(3), 청년사업팀(3)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자리지원팀(1)
		창업진흥과	• 산학협력팀(1)
4. 인천	일자리경제국	창업지원과	• 청년일자리지원팀(4)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정책팀(1)
5.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5), 청년지원팀(5)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청년일자리팀(4)
6. 대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5), 청년활동지원팀(3)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청년일자리팀(3)
7. 울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인구청년정책팀(3)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총괄과	• 창업지원팀(2), 취업지원팀(2)
8. 세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저출산정책팀(1)
9.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청년지원팀(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지원과	• 청년일자리팀(5)
10. 강원	경제진흥국	일자리과	• 청년일자리팀(4)
11. 충북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4), 청년일자리팀(5)
12. 충남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 청년정책팀(4)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	• 청년일자리팀(3)
13. 전북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	• 청년정책팀(4)
14. 전남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지원관	• 청년일자리팀(3)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4)
15. 경북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4), 청년취업지원팀(4), 청년창업팀(4)
16. 경남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 서민자녀교육지원팀(3)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 청년일자리팀(4)
17.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청년정책팀(3)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지원팀(3)

주 : 팀 이름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 직원 수를 의미
 자료 : 각 시·도 홈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법규시스템(ELIS)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를 파악해본 결과, 2018년 2월 현재 모두 64개 시·군·구로 확인
 -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의 비율은 28.3%에 불과
- 시·도별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시·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저조한 실정이며, 대구와 울산은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사례 지역(서울, 대구, 광주)의 재정지원 청년정책 사업

-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다른 시·도에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서울(2015.11.), 대구(2017.1.), 광주(2017.2.) 등을 사례 지역으로 검토하고자 함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도’가 아닌 ‘시’ 단위에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대도시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세 도시의 청년 인구(20~39세)는 26.7~30.8%로 평균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의 비중은 총예산의 0.69~1.17%를 차지해 1% 안팎에 머물고 있음
 - 청년정책 예산에서 일자리·능력개발(취업 및 창업, 교육 등) 분야에 서울과 대구가 각각 54.3%와 85.8%의 비중을 나타내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 광주의 경우 복지·생활안정(주거, 부채 등)의 예산 비중이 청년정책 예산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제2남도학사 건립 160억(28%), 장애 청년사회진출 85억(15%) 등 기존 사업이 청년정책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 기인

■ 사례 지역의 재정지원 청년정책 사업 현황(2017년)

단위 : 억 원, %, 명

구분	총예산	청년 예산	총예산 대비	청년정책 중점 분야	청년 예산 대비	청년 인구 (20~39세)	총인구 대비
서울	263,017	1,805	0.69	일자리·능력개발 (취·창업, 교육 등)	54.30	3,058,773	30.80
대구	121,703	1,428	1.17	일자리·능력개발 (취·창업, 교육 등)	85.83	662,041	26.65
광주	59,017	563	0.95	복지·생활안정 (주거, 부채 등)	49.40	413,432	28.15

자료 : 각 시·도의 홈페이지 및 청년정책 추진계획; 국가통계포털

서울시의 청년정책 및 관련 사업

- 서울시는 2013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 발굴이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서울시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사회, 경제, 주거, 청년 활동의 네 가지 환경 요인을 구분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경험하는 청년층의 문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본계획에 반영된 4대 분야의 예산 비중은 2017년 총예산 대비로 볼 때, 일자리(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정망 구축) 54.50%, 살자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25.77%, 설자리(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문화 등) 15.63%, 놀자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4.11%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에 수행한 청년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 시간(청년수당 등), 공간(무중력지대 등), 기회(청년투자프로젝트, 뉴딜일자리 등) 등의 보장으로 새롭게 구성
- 많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 연계형 사회서비스의 발굴로 50억 규모의 사업비에 1개 프로젝트 당 최대 2년간 10억을 지원하는, 2017년 신규로 추진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을 사업비의 50% 이내로 책정하도록 설정

대구시의 청년정책 및 관련 사업

- 2015년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201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회, 즐거움, 참여 등 3대 영역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개 전략과제에 35개 세부사업을 계획
-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 청년희망 대구’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참여, 문화교육생활 등 3개 분야에 10대 세부추진과제와 59개 사업을 추진
 - 청년정책 예산 비중은 10대 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업 74.07%, 일자리 11.02%, 소통 5.29%, 문화 9.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청년 NGO 활동사업은 청년, 대학생의 지역에 대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안적인 일자리를 마련
 - 일회성 자원봉사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가를 육성하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NGO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광주시의 청년정책 및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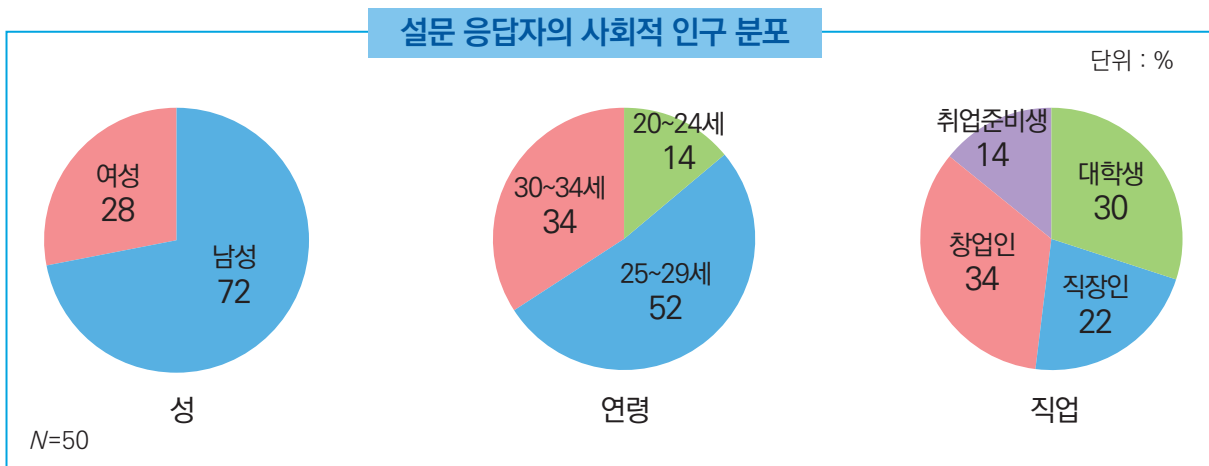
-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복지 등 청년문화 형성과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2017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을 정책 비전으로, 그리고 ‘넉넉한 경제청년’, ‘따뜻한 복지청년’, ‘꿈꾸는 문화청년’, ‘참여하는 자치청년’ 등을 4대 분야로 제시
 - 4개 분야 63개 사업에 총 56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년예산의 비중은 경제 46.14%, 복지 49.40%, 문화 2.33%, 참여·자치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일자리(취·창업 등)가 아닌 복지·생활안정(주거, 부채 등)인 이유는 제2남도학사 건립 160억(28%), 장애 청년 사회진출 85억(15%) 등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정책은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사업으로 판단
 - 중앙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만 19~29세 구직활동 청년 500여 명에게 1일 2회의 시내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 또한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대학원생까지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 졸업 후, 미취업한 청년층, 상환유예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III.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1 분석의 개요

울산청년네트워크 회원 중심으로 설문조사 수행

- 2017년 8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청년위원으로 위촉받은 ‘울산청년네트워크’(이하 ‘울산청넷’) 회원을 중심으로 모두 50명의 청년들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 울산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울산청넷 회원들에게 설문함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예상할 수 있고, 설문의 결과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울산 청년이 울산 청년 정책을 직접 만든다’는, ‘정책의 참여’와도 연결되어 의미 있는 설문이 될 것으로 기대
-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6일 동안 설문을 진행한 결과 50명 모두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들 설문 중에서 15부가 무응답 또는 중복 응답 등 유효하지 않은 응답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재설문을 의뢰하였고 이들 설문을 모두 회수하여 50부 전부를 통계처리
 - 응답자의 사회적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2%로 나타나 다수를 차지하고, 20대 후반에 해당하는 25~29세가 절반을 상회하며, 직업의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



설문을 통해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 등 파악

-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를 사용
 -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등 실시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6대 추진전략 및 40개 세부과제

1.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 | |
|----------------------------|------------------------------------|
| ①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 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
| ②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확대 | ⑥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
| ③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⑦ 취업 기자단 운영 |
| ④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 ⑧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

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 | |
|------------------------------|-------------------------|
| ① 울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 ⑤ 청년 관광안내사 선발 |
| ②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증원·추가 배치 | ⑥ 울산 청년발전단 구성·운영 |
| ③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및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 ⑦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
| ④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 |

3. 청년 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

- | | |
|-------------------------------|-----------------------------|
| ① 울산인재육성 재단 설립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④ 청년울산 대장정 개최 |
| ② 청년 무역딜러(청년보부상) 양성 | ⑤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
| ③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 ⑥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

4.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

- | | |
|----------------------------|--------------------------|
| ① 울산 청년 CEO 육성 | ⑥ 창업선도대학 육성 |
| ②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확대 운영 | ⑦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
| ③ 소규모 제조업 공간 「톡톡팩토리」 확대 운영 | ⑧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운영 |
| ④ 지식기술 창업지원 | ⑨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및 3D 창작터 운영 |
| ⑤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 ⑩ 울산 청년창업 상생서포터즈 사업 |

5. 활동 생태계 및 자립기반 조성

- | | |
|----------------------|----------------------------|
| ①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 | ④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
| ②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⑤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
| ③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 ⑥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

6.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마련

- | | |
|-------------------|----------------|
| ①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③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
| ②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 |

- 설문 조사의 내용은 울산광역시가 수립한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울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대 추진전략에 대한 중요도, 청년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
 -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40개 세부과제 중에서 사업의 추진이 완료된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울산 청년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은 각각 ‘청년기본조례 개정·정비’와 ‘청년 네트워크 구성 확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필요도 설문 실시

2 분석의 결과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26점

-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별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5점 척도로 설문
 - 응답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40개로 구성된 세부과제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0.97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
 - 각각의 세부과제를 제외하더라도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세부과제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과제 만족도 점수에 대한 각각의 변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 그 결과 F값이 3.677,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평균과 총표준편차는 각각 3.262와 1.133으로 산출
- 전반적으로 여섯 번째와 네 번째 추진전략, 즉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마련’과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첫 번째 추진전략인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0개 세부과제 중에서 1순위를 나타낸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세부과제는 본 설문이 울산청넷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판단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

순위	세부과제	평균	전순위 와 편차	표준 편차	해당 과제 삭제 시 Cronbach's α
1	• 6-2.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3.62	-	1.369	.969
2	• 4-1. 울산 청년 CEO 육성	3.60	.02	1.212	.969
3	• 4-4. 지식기술 창업지원	3.58	.02	1.108	.969
4	• 6-1. 청년 기본 조례 제정	3.58	-	1.372	.969
5	• 5-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54	.04	1.297	.969
6	• 4-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3.52	.02	.974	.969
7	• 4-10. 울산 청년창업 상생서포터즈 사업	3.52	-	1.111	.969
8	• 2-7.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3.52	-	1.165	.969
9	• 4-3. 소규모 제조업 공간 「톡톡팩토리」 확대 운영	3.52	-	1.182	.969
10	• 3-1. 울산인재육성 재단 설립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3.46	.06	1.054	.969
11	• 4-9.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및 3D 창작터 운영	3.44	.02	1.163	.969
12	• 5-6.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3.44	-	1.296	.969
13	• 2-6. 울산 청년발전단 구성·운영	3.34	.10	1.136	.969
14	• 6-3.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3.34	-	1.379	.969
15	• 4-2.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확대 운영	3.32	.02	1.203	.969
16	• 3-6.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3.30	.02	1.182	.969
17	• 1-5.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3.28	.02	1.031	.969
18	• 4-5.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3.28	-	1.089	.969
19	• 3-3.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3.26	.02	1.121	.969
20	• 5-1.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	3.26	-	1.226	.970
21	• 5-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3.24	.02	1.271	.968
22	• 2-3.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및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3.22	.02	.975	.969
23	• 4-8.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운영	3.22	-	1.075	.969
24	• 4-6. 창업선도대학 육성	3.22	-	1.183	.969
	• 5-4.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3.22	-	1.183	.969
26	• 3-5.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3.20	.02	.881	.969
27	• 2-1. 울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3.18	.02	.941	.969
28	• 1-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3.16	.02	1.167	.970
29	• 3-2. 청년 무역딜러(청년보부상) 양성	3.14	.02	1.010	.969
30	• 2-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3.12	.02	.982	.969
31	• 1-8.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3.10	.02	1.093	.969

순위	세부과제	평균	전순위 와 편차	표준 편차	해당 과제 삭제 시 Cronbach's α
32	• 2-2.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증원·추가 배치	3.08	.02	.804	.969
33	• 3-4. 청년울산 대장정 개최	3.04	.04	.989	.969
34	• 1-6.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3.04	-	1.177	.969
35	• 1-2.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확대	3.02	.02	1.000	.969
36	• 1-1.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3.02	-	1.059	.970
37	• 2-5. 청년 관광안내사 선발	3.02	-	1.169	.969
38	• 1-4.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3.00	.02	1.030	.969
39	• 1-7. 취업 기자단 운영	3.00	-	1.069	.969
40	• 5-5.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2.50	.50	1.111	.970

주 : ¹ N=50

² 세부과제 정렬은 평균(5점 만점) 크기순에 의함

³ 평균이 같은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세부과제에 높은 순위를 부여

⁴ 4-6번과 5-4번 과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동일해 과제번호순으로 정렬

- 만족도의 점수가 가장 낮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세부과제는 전 순위와의 편차도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네 번째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다른 전략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나, 직업 유형별로 그룹 간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면 창업인이 다른 직업인에 비해 이 전략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과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 수요자의 불만족 사항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그러나 일원분산분석 결과,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취업준비생 등 직업 유형별 그룹 간에 이 전략에 속한 10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 추진전략’ 소속 세부과제별 직업 유형별 그룹 간 만족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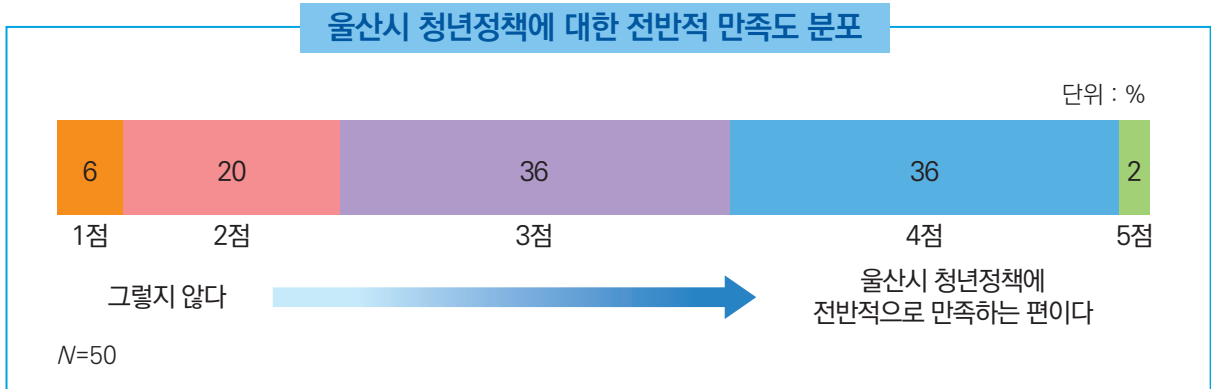
세부과제번호	전 체	직업 유형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취업준비생
4-1	3.60	3.93(1)	3.36(3)	3.35(4)	3.86(2)
4-2	3.32	3.53(2)	3.36(3)	2.94(4)	3.71(1)
4-3	3.52	3.73(1)	3.55(3)	3.24(4)	3.71(2)
4-4	3.58	3.67(2)	3.55(3)	3.35(4)	4.00(1)
4-5	3.28	3.27(3)	3.45(2)	3.00(4)	3.71(1)
4-6	3.22	3.53(1)	3.18(3)	2.94(4)	3.29(2)
4-7	3.52	3.67(2)	3.36(3)	3.35(4)	3.86(1)
4-8	3.22	3.47(1)	3.27(2)	3.00(4)	3.14(3)
4-9	3.44	3.87(1)	3.45(3)	2.94(4)	3.71(2)
4-10	3.52	3.67(2)	3.45(3)	3.24(4)	4.00(1)

주: ¹ N=50

² 통계치 오른쪽의 괄호 안 수치는 세부과제별 직업 유형 그룹 간 순위를 의미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0.2점

-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를 포함해서 울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5점 척도로 설문하여 측정
 - 그 결과 평균은 3.08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2점에 해당
 - 표준편차는 0.944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척도가 동일한 40개 세부과제 만족도의 모든 표준편차를 통틀어 두 번째 작은 값에 해당해 응답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점수별 분포는 3점과 4점이 각각 36%씩, 전체의 72%를 차지해 대부분 응답자들에게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그리 높은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



세부과제별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은 편

- 40개 세부과제별 만족도 점수와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
- 또한 40개 세부과제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만족도 점수별로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과제들이 만족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통계적으로도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세부과제별 만족도 점수 그룹 간에 청년정책 전반적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2개, 즉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과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제외한 38개 세부과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룹 간 평균의 상대적 크기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세부과제별로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확인
 - * Levene 통계량으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등분산을 가정한 경우와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가장 일반적인 사후검정 방법에 해당하는 Scheffe와 Dunnett T3 검정법을 적용
 - * 단, 1개 이상의 그룹이 1개 이하의 표본을 갖는 경우 사후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며 6개 세부과제가 이에 해당
 - * 사후분석 결과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5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다른 검정 방법을 적용하면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남

세부과제 만족도 점수별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단위 : 점(%)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1(a)	2(b)	3(c)	4(d)	5(e)		1(a)	2(b)	3(c)	4(d)	5(e)		
1-1 • $r=.529^{**}$ • $F=5.097^{**}$ (a,b(e) ^S)		2.20 (10)	2.44 (18)	3.21 (38)	3.36 (28)	4.33 (6)	2-1 • $r=.489^{**}$ • $F=3.977^{**}$ (a(e) ^S)		1.50 (4)	2.56 (18)	3.10 (40)	3.38 (32)	4.00 (6)
1-2 • $r=.539^{**}$ • $F=4.898^{**}$ (알 수 없음) ^D		2.25 (8)	2.50 (20)	3.05 (38)	3.53 (30)	4.50 (4)	2-2 • $r=.475^{**}$ • $F=5.067^{**}$ (수행 불가) ^S		1.00 (2)	2.38 (16)	3.10 (60)	3.88 (16)	3.33 (6)
1-3 • $r=.488^{**}$ • $F=4.083^{**}$ (b(d,e) ^D)		2.50 (12)	2.33 (12)	3.00 (36)	3.36 (28)	4.00 (12)	2-3 • $r=.468^{**}$ • $F=4.204^{**}$ (수행 불가) ^S		1.00 (2)	2.70 (20)	2.91 (44)	3.64 (22)	3.67 (12)
1-4 • $r=.336^*$ • $F=2.668^*$ (b(c,e) ^L)		2.60 (10)	2.29 (14)	3.28 (50)	3.11 (18)	3.75 (8)	2-4 • $r=.518^{**}$ • $F=9.469^{**}$ (수행 불가) ^D		1.00 (2)	2.17 (24)	3.35 (46)	3.75 (16)	3.33 (12)
1-5 • $r=.564^{**}$ • $F=6.129^{**}$ (수행 불가) ^D		1.00 (2)	2.64 (22)	2.83 (36)	3.46 (26)	4.00 (14)	2-5 • $r=.572^{**}$ • $F=6.218^{**}$ (a(d,e) ^S)		1.80 (10)	2.83 (24)	3.06 (32)	3.45 (22)	4.00 (12)
1-6 • $r=.511^{**}$ • $F=4.403^{**}$ (a(e) ^S)		2.17 (12)	2.89 (18)	2.94 (36)	3.45 (22)	4.00 (12)	2-6 • $r=.488^{**}$ • $F=5.009^{**}$ (a(c,d,e) ^S)		1.33 (6)	2.70 (20)	3.18 (22)	3.32 (38)	3.57 (14)
1-7 • $r=.445^{**}$ • $F=4.639^{**}$ (b(d) ^S)		2.50 (8)	2.55 (22)	3.00 (42)	4.00 (18)	3.40 (10)	2-7 • $r=.462^{**}$ • $F=4.103^{**}$ (a(e) ^B)		1.50 (4)	2.38 (16)	3.13 (30)	3.33 (24)	3.46 (26)
1-8 • $r=.546^{**}$ • $F=5.861^{**}$ (a,b(e) ^S)		2.00 (8)	2.50 (20)	3.22 (36)	3.23 (26)	4.20 (10)	3-1 • $r=.372^{**}$ • $F=4.870^{**}$ (a(c,e) ^S)		1.67 (6)	2.00 (6)	3.33 (42)	2.93 (28)	3.56 (18)

단위 : 점(%)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1(a)	2(b)	3(c)	4(d)	5(e)		1(a)	2(b)	3(c)	4(d)	5(e)
3-2 • $r=.523^{**}$ • $F=4.637^{**}$ (a,e) ^S	1.67 (6)	2.71 (14)	3.04 (52)	3.38 (16)	4.00 (12)	4-4 • $r=.520^{**}$ • $F=4.943^{**}$ (a,c,e) ^S	1.50 (4)	2.80 (10)	2.72 (36)	3.33 (24)	3.69 (26)
3-3 • $r=.539^{**}$ • $F=5.455^{**}$ (a,d,e) ^S	1.75 (8)	2.63 (16)	3.13 (30)	3.24 (34)	4.00 (12)	4-5 • $r=.534^{**}$ • $F=5.582^{**}$ (수행 불가) ^S	1.00 (2)	2.42 (24)	3.11 (36)	3.50 (20)	3.67 (18)
3-4 • $r=.565^{**}$ • $F=5.366^{**}$ (a,b,e) ^S	2.00 (6)	2.55 (22)	3.05 (40)	3.54 (26)	4.33 (6)	4-6 • $r=.642^{**}$ • $F=10.189^{**}$ (a,b,c,e; a(d) ^D)	1.33 (6)	2.75 (24)	2.93 (30)	3.27 (22)	4.11 (18)
3-5 • $r=.471^{**}$ • $F=4.218^{**}$ (a,d) ^S	1.50 (4)	2.33 (12)	3.08 (50)	3.57 (28)	3.33 (6)	4-7 • $r=.486^{**}$ • $F=4.290^{**}$ (수행 불가) ^S	1.00 (2)	2.60 (10)	2.90 (40)	3.13 (30)	3.89 (18)
3-6 • $r=.472^{**}$ • $F=4.494^{**}$ (a,e) ^S	1.67 (6)	2.50 (20)	3.25 (32)	3.36 (22)	3.50 (20)	4-8 • $r=.505^{**}$ • $F=4.728^{**}$ (c,e) ^D	1.67 (6)	2.75 (16)	3.05 (42)	3.18 (22)	4.00 (14)
4-1 • $r=.528^{**}$ • $F=6.004^{**}$ (a,c,e) ^S	1.67 (6)	3.00 (12)	2.64 (28)	3.17 (24)	3.73 (30)	4-9 • $r=.506^{**}$ • $F=4.057^{**}$ (b,e) ^B	2.00 (4)	2.60 (20)	2.77 (26)	3.36 (28)	3.73 (22)
4-2 • $r=.516^{**}$ • $F=5.703^{**}$ (a(c,d,e) ^S)	1.33 (6)	2.80 (20)	3.06 (32)	3.20 (20)	3.73 (22)	4-10 • $r=.543^{**}$ • $F=6.801^{**}$ (a(c,d,e; b(e) ^S)	1.00 (4)	2.29 (14)	3.13 (30)	3.33 (30)	3.55 (22)
4-3 • $r=.492^{**}$ • $F=5.575^{**}$ (a(c,d,e) ^S)	1.33 (6)	2.83 (12)	3.06 (32)	3.00 (24)	3.69 (26)	5-1 • $r=.264$ • $F=2.121$	1.67 (6)	3.00 (22)	3.17 (36)	3.33 (12)	3.25 (24)

단위 : 점(%)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세부과제 번호	만족도 점수				
	1(a)	2(b)	3(c)	4(d)	5(e)		1(a)	2(b)	3(c)	4(d)	5(e)
5-2 • $r=.414^{**}$ • $F=4.339^{**}$ (a<c,e) ^S	1.33 (6)	2.78 (18)	3.23 (26)	3.13 (16)	3.41 (34)	5-6 • $r=.338$ • $F=2.114$	2.33 (6)	2.60 (20)	3.07 (30)	3.67 (12)	3.31 (32)
5-3 • $r=.528^{**}$ • $F=5.971^{**}$ (a<c,d,e) ^S	1.50 (8)	2.83 (24)	3.08 (26)	3.40 (20)	3.64 (22)	6-1 • $r=.578^{**}$ • $F=7.131^{**}$ (a<c,d,e) ^S	1.50 (8)	2.56 (18)	3.10 (20)	3.38 (16)	3.53 (38)
5-4 • $r=.550^{**}$ • $F=6.299^{**}$ (a<c,d,e) ^S	1.60 (10)	2.86 (14)	3.11 (36)	3.33 (24)	3.75 (16)	6-2 • $r=.514^{**}$ • $F=7.300^{**}$ (a<c,d,e) ^S	1.40 (10)	2.80 (10)	3.21 (28)	3.33 (12)	3.40 (40)
5-5 • $r=.428^{**}$ • $F=3.444^{*}$ (a<d) ^G	2.40 (20)	2.94 (32)	3.31 (32)	4.00 (10)	3.33 (6)	6-3 • $r=.621^{**}$ • $F=11.416^{**}$ (a<c,d,e) ^D	1.50 (12)	2.63 (16)	3.29 (28)	3.57 (14)	3.53 (30)

주 : ¹ N=50

² * $p<.05$ ** $p<.01$

³ 세부과제 번호 아래 통계치는 r =전반적 만족도와와의 상관계수, F =만족도 점수 그룹 간, 그룹 내 F 값을 의미

⁴ F 값 아래 괄호 안의 부등호식은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로서 a~e는 각각 만족도 점수 1~5점 그룹을 의미

⁵ 사후검정은 분산의 등분산을 가정한 경우와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Scheffe와 Dunnett T3 검정을 적용하였고

부등호식 뒤에 각각 ^S와 ^D로 표기, Scheffe와 Dunnett T3 검정 후에도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각

Bonferroni와 Games-Howell 검정을 실시해 부등호식 뒤에 각각 ^B와 ^G로 표기, 이들 사후검정 후에도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 단 1개 이상의 그룹이 표본수가 1 이하인 경우 사후검정을 실행할

수 없어 '수행 불가'로 표기

⁶ 1-4번 과제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로서 LSD 검정법으로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부등호식

뒤에 ^L로 표기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40개 세부과제는 8개 요인으로 축약

- 40개 세부과제에 대해 만족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약하여 표현하는 요인분석을 실시
 - 요인분석 결과 모두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77.302%를 설명
 - * KMO(Kaiser-Meyer-Olkin) 값은 0.7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비교적 적합한 수준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 결과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유의미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
 - * 요인의 추출 조건은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으로 하였고, 요인의 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회전 방법은 직각회전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
- 추출된 8개의 요인은 각 요인에 속한 세부과제의 의미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공공일자리 및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경제 및 주거 지원’, ‘취업 기회 확대’, ‘제도 및 연구 지원’, ‘인턴십 확대’, ‘창업 교육’, ‘문화·교류’ 등으로 명명
 - 8개의 요인은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6대 추진전략과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며, 요인별 세부과제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9개 등으로 구성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세부과제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과제번호	요 인								공통성	Cronbach's α
	1	2	3	4	5	6	7	8		
• 2-4	.786	.158	.202	.308	.039	-.041	.136	.007	.800	.891
• 3-3	.718	.098	.050	.381	-.008	.168	.056	.368	.840	
• 2-5	.674	.163	.160	.180	.054	.276	-.022	-.008	.618	
• 2-2	.648	.172	.148	.194	.363	.250	.026	-.276	.780	
• 2-3	.600	.186	.213	-.007	.442	.121	.161	-.191	.712	
• 2-1	.593	.174	.304	.076	.150	.176	.082	.278	.618	
• 3-2	.544	.243	.084	.471	.105	-.052	.186	.332	.741	
• 1-5	.416	.349	-.196	.237	.292	.291	.261	.046	.630	

과제번호	요인								공통성	Cronbach's α
	1	2	3	4	5	6	7	8		
• 4-2	.004	.808	.142	.236	.075	.343	.139	.118	.885	.941
• 4-3	.053	.791	.115	.297	.207	.268	.031	.154	.870	
• 4-1	.365	.752	.191	.025	.119	.082	.245	.070	.822	
• 4-5	.324	.674	.130	.106	.400	.146	.152	.056	.794	
• 4-4	.384	.653	.207	.040	.281	.044	.163	.004	.726	
• 3-6	.533	.634	.201	.323	.060	-.029	.023	-.095	.845	
• 4-7	.268	.611	.381	.135	.200	.120	.326	.190	.806	
• 4-10	-.047	.474	.431	.269	.372	.422	.178	.115	.846	
• 3-5	.414	.432	.129	.432	.346	.050	.109	-.296	.783	
• 5-1	.035	.152	.792	.076	.158	.111	.339	-.119	.823	
• 5-2	.265	.118	.706	.299	.281	.079	.108	.017	.769	
• 5-6	.320	.215	.683	-.016	.314	.070	-.017	.230	.773	
• 5-3	.131	.385	.592	.333	.221	.211	.267	.228	.843	
• 3-4	.267	.157	.534	.275	.163	.369	.076	-.144	.646	
• 1-4	.276	.354	.415	.254	-.257	.160	.355	-.015	.656	
• 1-8	.194	.192	.141	.758	.136	.190	.166	.105	.762	.884
• 2-6	.307	.142	.365	.659	.018	-.024	.219	.138	.750	
• 1-6	.438	.260	-.008	.581	.256	-.016	.184	.227	.748	
• 1-7	.381	.086	.180	.542	.428	.130	-.301	-.079	.776	
• 3-1	.345	.261	.428	.506	.089	.148	-.044	.065	.662	
• 2-7	.443	.269	.431	.448	.123	.010	.222	.043	.722	
• 6-2	.114	.199	.285	.191	.784	.145	.191	.167	.871	.940
• 6-3	.179	.404	.319	.179	.692	.125	.151	.093	.855	
• 6-1	.218	.407	.297	.126	.653	.055	.197	.237	.842	
• 1-1	.190	.178	.266	-.042	.122	.812	.032	.174	.847	.844
• 1-3	.234	.207	.023	.081	-.019	.716	.398	.151	.798	
• 1-2	.115	.267	.124	.202	.281	.572	.418	.084	.728	
• 4-8	.086	.174	.312	.141	.256	.216	.739	-.003	.813	.858
• 4-6	.419	.270	.201	.046	.106	.128	.647	.378	.879	
• 4-9	-.061	.383	.225	.264	.160	.334	.615	.086	.794	
• 5-5	-.001	.142	-.008	.188	.153	.246	.158	.782	.776	.642
• 5-4	.376	.180	.305	.133	.333	.320	-.064	.410	.671	
• 고유값	18.755	2.970	2.034	1.803	1.587	1.460	1.223	1.090		
• 설명 분산	46.886	7.424	5.085	4.507	3.968	3.650	3.057	2.724		
• 누적 분산	46.886	54.310	59.396	63.903	67.871	71.521	74.578	77.302		

주 :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분석에 의한 추출요인 및 요인별 세부과제

• 제1요인 : 공공일자리 및 인력 양성

- 2-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 3-3.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 2-5. 청년 관광안내사 선발
- 2-2.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증원·추가 배치
- 2-3.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및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 2-1. 울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 3-2. 청년 무역딜러(청년보부상) 양성
- 1-5.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 제2요인 : 창업 지원

- 4-2.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확대 운영
- 4-3. 소규모 제조업 공간 「톡톡팩토리」 확대 운영
- 4-1. 울산 청년 CEO 육성
- 4-5.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 4-4. 지식기술 창업지원
- 3-6.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 4-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 4-10. 울산 청년창업 상생서포터즈 사업
- 3-5.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 제3요인 : 경제 및 주거 지원

- 5-1.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
- 5-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5-6.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 5-3.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 3-4. 청년울산 대장정 개최
- 1-4.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 제4요인 : 취업 기회 확대

- 1-8.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 2-6. 울산 청년발전단 구성·운영
- 1-6.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 1-7. 취업 기자단 운영
- 3-1. 울산인재육성 재단 설립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2-7.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 제5요인 : 제도 및 연구 지원

- 6-2.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 6-3.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 6-1.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제6요인 : 인턴십 확대

- 1-1.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 1-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1-2.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확대

• 제7요인 : 창업 교육

- 4-8.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운영
- 4-6. 창업선도대학 육성
- 4-9.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및 3D 창작터 운영

• 제8요인 : 문화·교류

- 5-5.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 5-4.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주 : 요인별 세부과제 정렬은 요인부하량 크기순에 의함

8개 추출 요인 중에서 6개의 요인이 전반적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

-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추출된 8개의 요인에 대해 단계적 선정법(stepwise selection method)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 그 결과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3요인과 제8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요인이 추출
 - VIF는 1.000으로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인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R^2 값은 0.585이나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크기에 의해 조정된 R^2 값이 0.527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6개의 요인들이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2.7%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 *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란 분산팽창계수로서 $1 \sim \infty$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 VIF의 역수인 공차(tolerance)가 최대값 1에 가까운 경우에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VIF가 1이면 이 값의 역수에 해당하는 공차 역시 1이 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회귀모형은 R^2 의 유의도를 평가하는 ANOVA 분석 결과 F값이 10.088, P값이 0.000으로 산출되어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유의
 - * 0부터 4까지의 값을 갖는 Durbin-Watson의 수치도 2에 가까운 1.944로 나타나 잔차들이 독립적이라는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울산 청년정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계 수			ANOV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B	표준오차			
• (상수)	3.080	.092	-	33.529**	10.088**
• 제1요인(공공일자리 및 인력 양성)	.378	.093	.401	4.078**	
• 제6요인(인턴십 확대)	.349	.093	.370	3.761**	
• 제5요인(제도 및 연구 지원)	.290	.093	.307	3.123**	
• 제4요인(취업 기회 확대)	.253	.093	.267	2.722**	
• 제7요인(창업 교육)	.233	.093	.247	2.515*	
• 제2요인(창업 지원)	.232	.093	.246	2.503*	

주 : ¹ N=50 ² * $p < .05$ ** $p < .01$ ³ R^2 (adj. R^2)=.585(.527) ⁴ Durbin-Watson=1.944

비표준화계수(B)를 통한 회귀식의 산정

$$\hat{Y}=3.080+0.378X_1+0.349X_2+0.290X_3+0.253X_4+0.233X_5+0.232X_6$$

\hat{Y} =울산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X_1 =제1요인(공공일자리 및 인력 양성), X_2 =제6요인(인턴십 확대), X_3 =제5요인(제도 및 연구 지원), X_4 =제4요인(취업 기회 확대), X_5 =제7요인(창업 교육), X_6 =제2요인(창업 지원)

추진전략별 중요도를 반영한 2017년 울산시 청년정책 종합평가 점수는 65.3점

- 6대 추진전략에 대해 고정총합척도법, 즉 고정된 총합 점수를 주고 이를 평가 대상인 6개의 추진전략에 할당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요도 설문을 실시
 - 본 설문에서는 고정된 총합을 100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청년정책 전체를 100점이라 가정했을 때 추진전략별로 중요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설문하는 것을 의미
 - * 가령 설문 응답자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에 30점을 주었다면 나머지 70점은 다른 5개의 추진전략에 할당하는 방식
 - 두 번째 추진전략인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의 경우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 일치도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응답자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시사

고정총합척도법에 의한 6대 추진전략별 중요도 설문 결과

추진전략	평균(순위)	표준편차	범 위	
			최소값	최대값
1.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22.24(1)	11.083	0	40
2.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12.26(6)	9.116	0	40
3. 청년 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	18.10(2)	8.681	3	50
4. 창업을 성공기반 확대	16.42(3)	9.085	0	40
5. 활동 생태계 및 자립기반 조성	14.96(5)	6.842	3	30
6.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마련	16.02(4)	7.531	0	40
합 계	100	-	-	-

주: N=50

-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울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의 지수화를 시도한다면 점수의 산출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먼저 1단계에서는 40개 세부과제의 만족도에 대해 6개 추진전략별로 총평균을 산출
 - 2단계에서는 6개 추진전략의 중요도에 대해 추진전략별로 평균을 산출
 - * 총합을 100점으로 고정하여 6개 추진전략별로 점수를 할당했으므로 전략별 평균을 합산해도 100점이 됨
 - * 지수화 산출의 참조 사례에 해당하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AKH 지수의 경우 총합을 10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점수를 4개 행복요인에 할당할 때 경우의 수가 9가지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총합을 100점으로 설정
 -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값과 2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6개 추진전략별로 각각 곱함
 - * 추진전략의 중요도는 결국 지수를 산출하는 데 가중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합산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3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할 때의 만점은 5점이 되므로 이 합계에 20배를 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이 값을 울산시 청년정책 종합점수 지수로 활용할 수 있음

일본 구마모토현의 AKH 지수 산출 사례

- 울산 청년정책 종합 평가 지수(안)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AKH(Aggregate Kumamoto Happiness, 구마모토현 총행복량) 지수를 참조한 것으로, 지수 산출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
 - 먼저 1단계에서는 AKH를 구성하는 12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한 후 이들 값을 4개 행복요인별로 합산
 - * 각 요인에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평균을 요인별로 합계 내는 것을 의미
 - 2단계에서는 4개 행복요인의 중요도에 대해 요인별로 평균을 산출
 - * 총합을 10점으로 고정하여 요인별로 점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요인별 평균을 합산해도 10점
 -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값과 2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4개 행복요인별로 각각 곱함
 - * 이 단계에서 행복요인의 중요도는 결국 AKH 지수를 산출하는 데 가중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
 -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합산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3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할 때의 만점은 150점이 되고, 그래서 이 합계에 1.5를 나누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데 바로 이 값이 AKH 지수에 해당

AKH 조사의 설문 문항 및 지수 산출 결과(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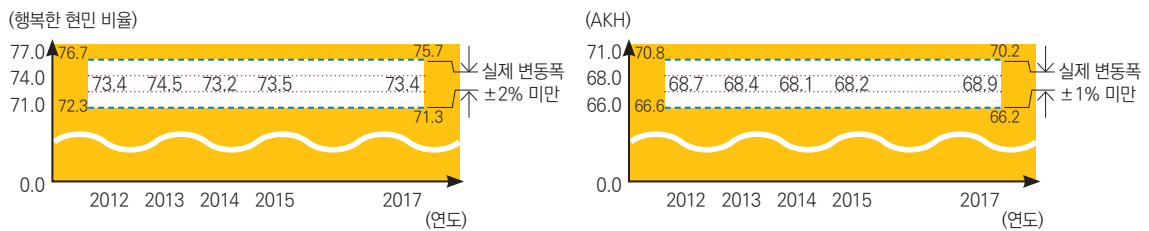
행복 요인	항목	만족도		평균	중요도 (가중치, B)	A×B (C)	C의 합계 (D)	AKH (D×100 /150)
		설문 문항	총점 (A)					
꿈과 희망	가족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족을 향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일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9.9	2.64	26.1		
	교육 환경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자 부 심	자연 환경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4.2					
	역사 문화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3.7	11.5	2.13	24.5		
	지역 사회	• 당신은 지역사회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3.6				103.4	68.9
경 제 적 안 정	소득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소비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	9.9	2.72	26.9		
	주거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에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까?	3.6					
불안 하지 않은 미래	몸과 마음의 건강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3.3					
	생활 환경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4.0	10.3	2.51	25.9		
	방재 치안	•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이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자료 : 熊本県(2017: 2)의 재구성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KH 값을 산출한 결과 2017년 구마모토현 총행복지수는 68.9점으로 측정
- 최근 몇 년 동안 행복한 현민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듯, 이 지수의 값 역시 2011년 시범조사 때 69.5점을 나타냈고 2012년 이후에는 ±1% 미만의 변동폭을 나타내 68점대를 유지

*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AKH 설문조사 미 실시

AKH 설문조사 주요 결과(행복한 현민 비율 및 AKH 지수, 2012~2017년)



주 : 연도별 AKH 지수 그래프(우)는 熊本県(2017: 1)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이 그림의 형식에 따라 통계 오차 ±3%(점선의 범위)를 적용하고 실제 변동폭을 산출하여 행복한 현민 비율 그래프(좌)를 표현
 자료 : 熊本県(2013a; 2013b; 2014; 2015a; 2015b; 2017)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울산시 청년정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 결과, 65.34점으로 나타남
 -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60.2점)와는 5.1점의 편차가 있으나, 40개 세부과제 만족도의 총평균(3.262)과는 100점 만점 환산(65.2점) 시 그 편차가 0.1점에 불과
- * 6개 추진전략별로 만족도와 중요도의 순위가 비례하지 않아 합산 과정에서 상쇄된 것으로 판단

울산 청년정책 종합 평가 지수(안)

단위 : 점(순위)

추진전략	만족도 총평균(A)	중요도 (가중치, B)	A×B(C)	C의 합계 (D)	(D/5)× 100
1.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3.078(6)	0.222(1)	0.684(1)	3.267	65.34
2.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3.211(4)	0.123(6)	0.394(6)		
3. 청년 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	3.233(3)	0.181(2)	0.585(2)		
4.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	3.422(2)	0.164(3)	0.562(4)		
5. 활동 생태계 및 자립기반 조성	3.200(5)	0.150(5)	0.479(5)		
6.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마련	3.513(1)	0.160(4)	0.563(3)		

주: ¹ N=50 ² 통계치 오른쪽의 괄호 안 수치는 순위를 의미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88점

-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별로 필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5점 척도로 설문
 - 응답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40개로 구성된 세부과제 필요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0.89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
 - 각각의 세부과제를 제외하더라도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1개 세부과제뿐이며, 그 값의 차이도 0.00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세부과제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과제 필요도 점수에 대한 각각의 변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 그 결과 F값이 5.888,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평균과 총표준편차는 각각 3.877과 1.092로 산출
- 전반적으로 여섯 번째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마련'의 필요도 점수가 다른 추진전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는 40개 세부과제 중에서 1순위를 나타내 응답자들이 기초조사·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에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도 필요도가 3순위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조례의 개정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울산발전연구원(2017)이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방안 연구' 과제를 통해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 분석을 다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분야로 구체화하여 울산 청년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필요도의 점수가 가장 낮은 세부과제는 만족도의 점수에서도 가장 낮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로 나타났으며, 전 순위와의 편차도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필요도 설문 결과

순위	세부과제	평균	전순위 와 편차	표준 편차	해당 과제 삭제 시 Cronbach's α
1	• 6-3.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4.40	-	.808	.895
2	• 1-5.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4.34	.06	.745	.896
3	• 6-1. 청년 기본 조례 제정	4.34	-	.798	.893
4	• 4-1. 울산 청년 CEO 육성	4.32	.02	.913	.894
5	• 5-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32	-	.957	.894
6	• 5-6.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4.30	.02	.931	.893
7	• 1-6.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4.18	.12	.962	.893
8	• 2-7.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4.18	-	.983	.894
9	• 6-2.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4.14	.04	.948	.892
10	• 1-1.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4.12	.02	1.081	.893
11	• 5-3.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4.12	-	1.118	.894
12	• 3-1. 울산인재육성 재단 설립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4.08	.04	.944	.892
13	• 1-2.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확대	4.06	.02	1.096	.892
14	• 4-4. 지식기술 창업지원	4.04	.02	1.029	.892
15	• 4-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3.96	.08	1.049	.891
16	• 1-4.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3.94	.02	.935	.897
17	• 3-3.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3.94	-	.978	.892
18	• 5-1.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	3.92	.02	1.085	.895
19	• 1-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3.92	-	1.140	.893
20	• 4-5.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3.88	.04	1.062	.892
21	• 4-3. 소규모 제조업 공간 「톡톡팩토리」 확대 운영	3.88	-	1.081	.891
22	• 3-6.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3.86	.02	.948	.893
23	• 4-10. 울산 청년창업 상생서포터즈 사업	3.86	-	1.010	.890
24	• 4-9.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및 3D 창작터 운영	3.86	-	1.050	.892
25	• 2-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3.84	.02	.912	.895
26	• 4-2.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확대 운영	3.84	-	1.113	.891
27	• 2-1. 울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3.80	.04	1.107	.894
28	• 2-6. 울산 청년발전단 구성·운영	3.78	.02	1.183	.893
29	• 2-2.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증원·추가 배치	3.68	.10	.891	.896
30	• 2-3.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및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3.68	-	1.151	.895
31	• 4-8.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운영	3.66	.02	1.022	.893

순위	세부과제	평균	전순위 와 편차	표준 편차	해당 과제 삭제 시 Cronbach's α
32	• 1-8.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3.64	.02	1.045	.892
33	• 4-6. 창업선도대학 육성	3.64	-	1.258	.891
34	• 5-4.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3.56	.08	1.327	.890
35	• 3-5.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3.52	.04	.909	.893
36	• 3-2. 청년 무역딜러(청년보부상) 양성	3.50	.02	1.199	.889
37	• 3-4. 청년울산 대장정 개최	3.46	.04	1.147	.894
38	• 1-7. 취업 기자단 운영	3.36	.10	1.139	.899
39	• 2-5. 청년 관광안내사 선발	3.30	.06	1.233	.891
40	• 5-5.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2.86	.44	1.471	.894

주 : ¹ N=50

² 세부과제 정렬은 평균(5점 만점) 크기순에 의함

³ 평균이 같은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세부과제에 높은 순위를 부여

직업 유형별 그룹 간에 6개 세부과제에서 필요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 직업 유형별로 개인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므로 이 유형에 따라 정책의 수요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설하에,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취업준비생 등 직업 유형별 그룹 간에 40개 세부과제의 필요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일원분산분석 실시

 - 검증 결과 6개의 세부과제에서 직업 유형별 그룹 간에 필요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 40개 세부과제 만족도와 울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에서는 직업 유형별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룹 간 평균의 상대적 크기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에서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확인

 - (1-4)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 직장인 < 취업준비생
 - (1-7) 취업 기자단 운영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1-8)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3-5)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 직장인 > 취업준비생

- (6-3)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 직장인 > 취업준비생

- * Levene 통계량으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등분산을 가정한 경우와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가장 일반적인 사후검정 방법에 해당하는 Scheffe와 Dunnett T3 검정법을 적용
- * 사후분석 결과 1-8, 3-5 등의 과제는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Bonferroni 검정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

설문응답자 직업 유형별 세부과제 필요도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단위 : 점

세부과제 번호	직업 유형 구분				세부과제 번호	직업 유형 구분			
	대학생 (a)	직장인 (b)	창업인 (c)	취준생 (d)		대학생 (a)	직장인 (b)	창업인 (c)	취준생 (d)
1-4 • F=3.646* (b<d) ^S	3.93	3.27	4.12	4.57	2-6 • F=3.136* (알 수 없음) ^D	4.27	4.09	3.53	2.86
1-7 • F=3.610* (a<d) ^S	3.13	3.09	3.24	4.57	3-5 • F=2.947* (b>d) ^B	3.47	3.91	3.65	2.71
1-8 • F=2.877* (a<d) ^B	3.27	3.73	3.53	4.57	6-3 • F=3.724* (b>d) ^S	4.53	4.73	4.41	3.57

주 : ¹ N=50(a=15, b=11, c=17, d=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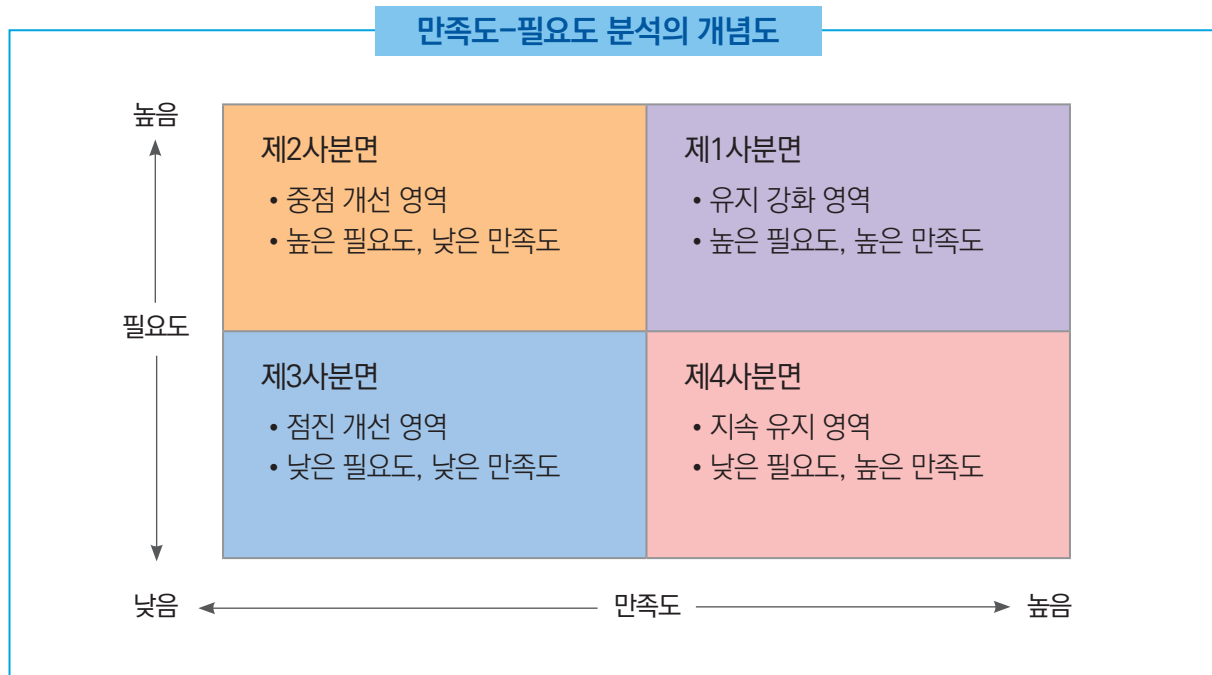
²*p<.05 **p<.01

³ 세부과제 번호 아래 통계치는 F=직업 유형별 그룹 간, 그룹 내 F값을 의미

⁴ F값 아래 괄호 안의 부등호식은 분산분석 사후 분석 결과로서, 분산의 등분산을 가정한 경우와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Scheffe와 Dunnett T3 검정을 적용하였고 부등호식 뒤에 각각 ^S와 ^D로 표기, Scheffe 검정 후에도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해 부등호식 뒤에 ^B로 표기, 이들 사후검정 후에도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에 유용한 만족도-필요도 분석

- 만족도-필요도 분석은 설문 응답자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느 한 속성에 대해 이를 얼마나 필요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속성을 이용하였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지 평가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필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방법
 - 분석에서 측정된 결과는 2차원 도면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필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수직축(y축)과 수평축(x축)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좌표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부여
 - 즉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할된 4사분면 가운데 각각의 속성이 지닌 결과값의 좌표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결정
 -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의 좌표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등 다양한 통계치들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중심점이 되는 x좌표의 값과 y좌표의 값은 각각 만족도의 평균과 필요도의 평균으로 설정
-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사분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은 이용자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도 만족도가 높은 속성들의 좌표가 모여 있는 사분면
 - * 실행주체는 이용자들이 이들 속성을 만족하는 편이라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며, 만족도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제2사분면은 이용자들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낮은 속성들의 좌표가 모여 있는 사분면
 - * 개선해야 하는 속성들 중에서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이 사분면에 포함된 요소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제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제3사분면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생각하지 않고 만족도도 낮은 속성들의 좌표가 모여 있는 사분면
 - * 현재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요소들에 해당
 - 제4사분면은 이용자들이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속성들의 좌표가 모여 있는 사분면
 - * 만족도가 불필요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속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이러한 수고의 투입을 다른 속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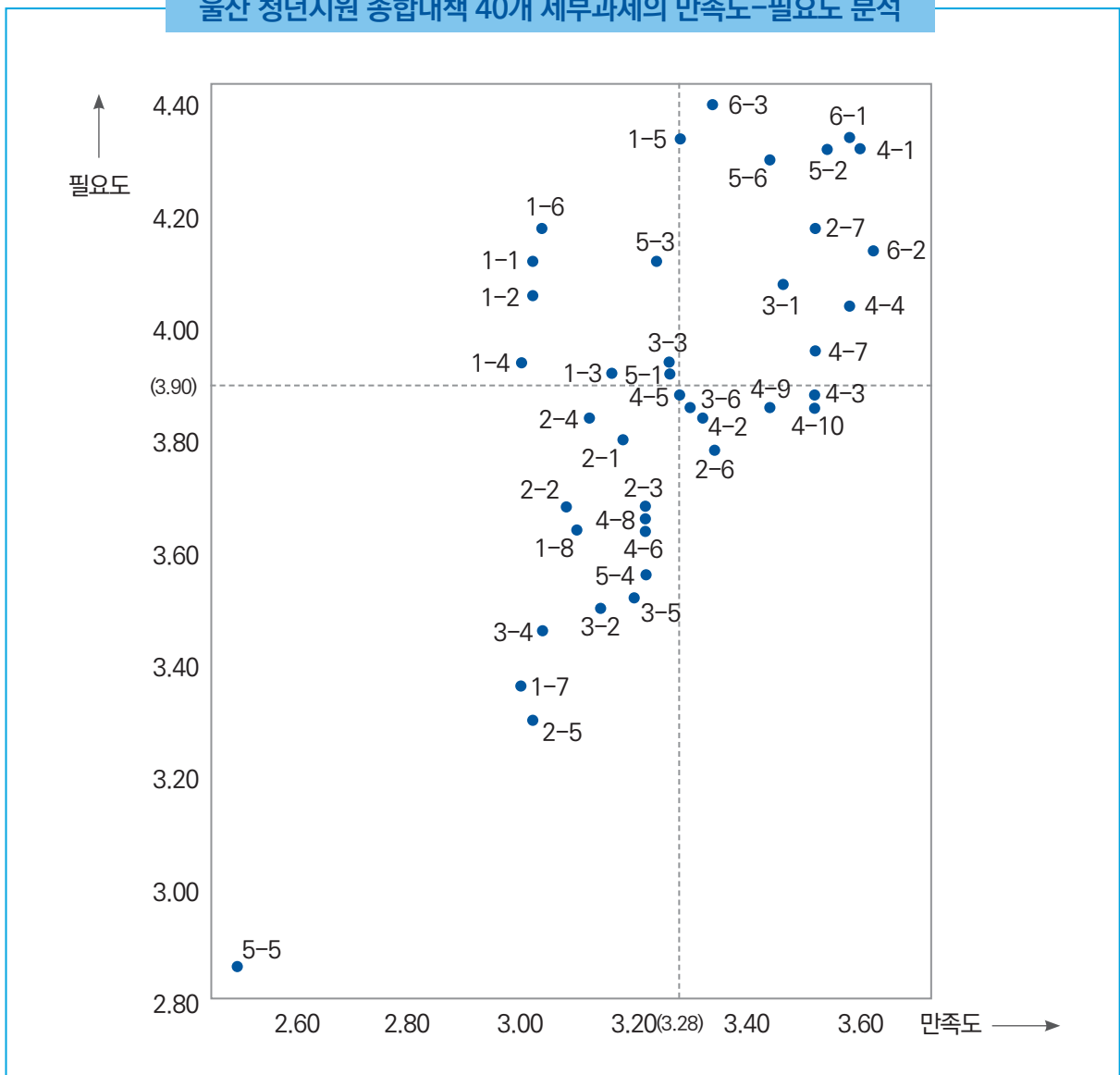
정책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이 되는 제2사분면에는 8개의 세부과제가 포함

- 40개 세부과제의 만족도-필요도 그래프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세부과제는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만족도와 필요도가 매우 낮은 이상값(outlier)에 해당하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상값을 제거한 후 재산출한 총평균(3.28, 3.90)을 x좌표와 y좌표의 중심점으로 설정
 - * 이상값이란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에서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 방향으로 사분위수 범위의 1.5배, 즉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사이 범위의 1.5배를 벗어난 값에 해당
- 제2사분면은 응답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세부과제들이 있는 영역

- ①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②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③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④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⑥ 지역 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⑦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⑧ 「울산 청년 창업펀드」(가칭) 조성 ⑨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등 9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

* 울산발전연구원(2017)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울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인턴십 확대'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의 만족도-필요도 분석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필요도 비교

사분면별 세부과제	평균		A-B	t
	만족도(A)	필요도(B)		
■ 제1사분면				
• 2-7.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3.52(8)	4.18(8)	-0.66	-4.109**
• 3-1. 울산인재육성 재단 설립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3.46(10)	4.08(12)	-0.62	-3.525**
• 4-1. 울산 청년 CEO 육성	3.60(2)	4.32(4)	-0.72	-3.887**
• 4-4. 지식기술 창업지원	3.58(3)	4.04(14)	-0.46	-3.031**
• 4-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3.52(6)	3.96(15)	-0.44	-2.804**
• 5-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54(5)	4.32(5)	-0.78	-4.532**
• 5-6.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3.44(12)	4.30(6)	-0.86	-4.438**
• 6-1. 청년 기본 조례 제정	3.58(4)	4.34(3)	-0.76	-3.857**
• 6-2. 울산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3.62(1)	4.14 (9)	-0.52	-2.768**
• 6-3. 청년활동 실태조사 연구	3.34(14)	4.40(1)	-1.06	-5.225**
■ 제2사분면				
• 1-1.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확대	3.02(36)	4.12(10)	-1.10	-7.244**
• 1-2.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확대	3.02(35)	4.06(13)	-1.04	-7.144**
• 1-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3.16(28)	3.92(19)	-0.76	-5.261**
• 1-4. 문화예술인-기업 파견 지원	3.00(38)	3.94(16)	-0.94	-5.870**
• 1-5.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3.28(17)	4.34(2)	-1.06	-7.219**
• 1-6.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3.04(34)	4.18(7)	-1.14	-6.231**
• 3-3. 청년 기술장인 육성(마이스터고+폴리텍 기능 강화)	3.26(19)	3.94(17)	-0.68	-4.719**
• 5-1. 「울산 청년창업펀드」(가칭) 조성	3.26(20)	3.92(18)	-0.66	-3.581**
• 5-3.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3.24(21)	4.12(11)	-0.88	-4.462**
■ 제3사분면				
• 1-7. 취업 기자단 운영	3.00(39)	3.36(38)	-0.36	-2.310*
• 1-8.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및 Global-Job 콘서트 개최	3.10(31)	3.64(32)	-0.54	-3.497**
• 2-1. 울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3.18(27)	3.80(27)	-0.62	-4.037**
• 2-2.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증원·추가 배치	3.08(32)	3.68(29)	-0.60	-3.712**
• 2-3.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및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3.22(22)	3.68(30)	-0.46	-3.031**
• 2-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3.12(30)	3.84(25)	-0.72	-4.676**
• 2-5. 청년 관광안내사 선발	3.02(37)	3.30(39)	-0.28	-1.372
• 3-2. 청년 무역딜러(청년보부상) 양성	3.14(29)	3.50(36)	-0.36	-2.483*
• 3-4. 청년울산 대장정 개최	3.04(33)	3.46(37)	-0.42	-2.636*

사분면별 세부과제	평균		A-B	t
	만족도(A)	필요도(B)		
• 3-5. 신진예술가 지원 및 국악예술강사 pool 구축	3.20(26)	3.52(35)	-0.32	-2.221*
• 4-5.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3.28(17)	3.88(20)	-0.60	-3.601**
• 4-6. 창업선도대학 육성	3.22(24)	3.64(33)	-0.42	-2.774**
• 4-8.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운영	3.22(23)	3.66(31)	-0.44	-2.955**
• 5-4.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3.22(24)	3.56(34)	-0.34	-2.023*
• 5-5.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2.50(40)	2.86(40)	-0.36	-2.078*
■ 제4사분면				
• 2-6. 울산 청년발전단 구성·운영	3.34(13)	3.78(28)	-0.44	-2.292*
• 3-6.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3.30(16)	3.86(22)	-0.56	-3.215**
• 4-2.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확대 운영	3.32(15)	3.84(26)	-0.52	-3.487**
• 4-3. 소규모 제조업 공간 「톡톡팩토리」 확대 운영	3.52(9)	3.88(21)	-0.36	-2.436*
• 4-9.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및 3D 창작터 운영	3.44(11)	3.86(24)	-0.42	-2.680*
• 4-10. 울산 청년창업 상생서포터즈 사업	3.52(7)	3.86(23)	-0.34	-2.117*
총평균(adj.)	3.26(3.28)	3.88(3.90)	-0.62	-

주 : ¹ N=50

² *p<.05 **p<.01

³ 사분면별 세부과제 정렬은 과제 번호순에 의함

⁴ 세부과제별 평균값 오른쪽의 괄호 안 수치는 순위를, 총평균의 경우는 이상값(outlier) 제거 후 조정된 총평균을 의미

⁵ 평균이 같은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세부과제에 높은 순위를 부여

- 40개 세부과제는 만족도에서 중요도를 뺀 값이 모두 음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설문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만족도 점수가 모두 필요도 점수에 미달해 응답자들이 각각의 세부과제에 대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 만족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40개 세부과제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
 - 그 결과 하나의 세부과제를 제외한 39개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29개, 0.05 미만에서 10개 세부과제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IV. 울산 청년정책 건의 및 제언

1 부문별 정책 건의 : 설문 응답자 의견을 중심으로

일자리

- ‘청년일자리 도시 울산’의 이미지 구축

“요즘 청년들은 일만 시켜주면 어디든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나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힘듭니다. ...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업체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울산 사람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바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청년일자리 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인구유출을 막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를 분산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세 남성, 취업준비생)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 정보는 매일 상황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채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28세 여성, 직장인)

- 녹색일자리 분야 정책 개발

“... 환경 분야에 관한 청년정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시·도나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기도 한 녹색일자리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을 검토하면 미래 청년일자리 창출에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분야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와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창업 부분의 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32세 여성, 직장인)

- 일본으로의 인턴 또는 취업박람회 참여의 장 마련

“일본으로 인턴 또는 취업박람회를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세요. 다양한 해외 역량 계발 경험과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서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2세 여성, 창업인)

능력 개발

- 자립 기반 및 능력개발의 환경 조성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능력개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 지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원하는 곳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낮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열정과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기에는 현실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창업과 자립 등 일자리 확대가 되더라도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청년들의 능력(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없이 기회만 정책 탓만 하는 청년들보다 전문성(차별화된/내가 잘하는)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울산다운 청년정책이라 생각합니다.” (28세 남성, 창업인)

- 적성과 능력 인지의 기회 제공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 본인의 취업분야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 이면에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일하고 싶은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세 여성, 대학생)

- 청년 인재 양성과 능력개발

“일할 기회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는 청년 인재 양성과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31세 남성, 취업준비생)

복지·주거

- 공공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충 지양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확충은 안 했으면 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모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어린이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기관 확충은 세금만 올라가게 되며, ...” (25세 남성, 대학생)

- 진정한 청년복지의 의미 구현

“청년이 사회적 약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기회의 제도 마련으로 자연스러운 사회화과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청년의 일자리부터, 놀고먹을 문화, 먹고 살 집 전부 다 해결해 준다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가 집중되어야 하며, ... 청년복지는 독립할 수 있는 것까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리드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청년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후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약자의 청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 보편적 청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세 남성, 취업준비생)

- 결혼과 육아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 마련

“... 지금 청년에게 가장 힘든 이슈는 구직과 결혼, 육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소할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직은 특히나 창업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또한 결혼과 육아는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점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심각한 필요성을 느끼고 현시점에서 미혼 남녀의 장을 만들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육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 마련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청년 통장, 청약 통장 등을 만들어 지원해주는데 이런 게 훨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만큼 청년들도 시의 노력을 피부로 알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세 여성, 취업준비생)

- 청년취업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회초년생의 경우 모아 놓은 자금도 없어서 집을 구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월세 내기에도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7세 여성, 직장인)

참여와 소통

- 청년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의 반영

“청년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7세 남성, 창업인)

-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울산시가 되어야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인 선택과 도전을 위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생각하고, 도출된 결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세 남성, 직장인)

- 청년네트워크의 권한과 책임 부여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설계와 실행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31세 남성, 창업인)

- 취업기자단 자격 범위의 확대

“취업기자단 모집을 대학생으로 국한하지 않고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취업준비생도 함께 포함한다면 대학생의 시선과 졸업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세 남성, 창업인)

- 울산 청년과의 소통의 장 마련

“울산시는 ... 청년네트워크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울산시 내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세 남성, 직장인)

-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 청년네트워크 회원이 울산 일반 청년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니, ...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 청년의 소통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울산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서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이 빠른 시일 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세 남성, 직장인)

- 타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타 지역의 청년네트워크와 세미나·워크숍을 열어 배울 점은 배우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세 남성, 대학생)

2 정책 제언

청년층 연령 범위의 재설정 검토

-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까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울산시 청년창업센터에서는 39세 이하로 보고 있어 상호 간 연계를 위해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34세 상한을 39세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 연령층의 확대가 20대 청년들에게는 정책의 혜택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
 - 정책의 수혜 대상을 20대 청년층에게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현재의 15세 하한을 경남과 제주처럼 19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 울산시가 규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에서 15세부터 19세까지는 청소년 연령층에 해당
 - * 즉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그리고 「민법」에서는 19세까지로 규정

통합적인 청년정책 행정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분산하여 담당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1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책기획관실로 6개, 인재교육과, 복지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 등이 각각 3개, 창조경제과, 통상교류과, 관광진흥과 등이 각각 2개, 투자유치과, 총무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체육지원과, 도시개발과, 울산도시공사 등이 각각 1개 등으로 나타남
- 울산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을 주무 부서로 하여 조례를 제정·공포했지만, 새롭게 청년정책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청년정책팀에서 담당
 -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 사업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시·도의 경우처럼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절적 정책 추진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12명 인력의 청년정책담당관을, 대구시는 시민행복국 산하에 11명 인력의 청년정책과를, 광주시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10명 인력의 청년정책과를, 대전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8명 인력의 청년정책담당관을 설치
- 그러나 전담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효과적·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인구청년정책팀 조직을 보강해 부서 간 청년정책의 협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당 부서가 청년정책에 대한 관리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부서별 청년정책에 대한 가치와 의미 합의, 추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전 정보 공유,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공동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 예산 편성에서의 상호 배분 및 협력 등이 부서 간 협업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함
- 울산시 차원의 협업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 사업에 대한 부서별 행정 업무 상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대분류(6대 추진전략)를 재구성하는 방안 검토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6대 추진전략은 대부분 일자리와 창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청년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되나 그 외 분야의 청년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 40개 세부과제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8개의 요인은 대체로 6대 추진전략과 유사하게 분류
 - 그러나 일자리 및 창업 등과 관련하지 않은 요인으로 ‘경제 및 주거 지원’, ‘제도 및 연구 지원’, ‘문화·교류’ 등이 추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및 창업 외의 분야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하여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대분류를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수 있음

매년 청년정책 종합 평가의 실시와 지수 산출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 울산청넷 대상으로 청년정책 만족도 설문을 해마다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안한 울산 청년정책 종합 평가의 지수를 산출해 청년정책을 매년 모니터링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의 지표 체계가 바뀌더라도, 본고에서 제안한 4단계의 과정으로 지수화를 시도한다면 종합점수의 산출이 가능
- 앞에서 살펴본 일본 구마모토현의 AKH 지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pm 1\%$ 미만의 변동폭을 나타내 68점대를 유지하고 있듯, 울산에서도 매년 청년정책 종합 평가의 지수를 산출한다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직업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필요도 설문에서 일부 세부과제에 직업 유형별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일자리 정보의 제공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이들 그룹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서 네 번째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의 만족도를 직업 유형별로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하면 창업인이 다른 직업인에 비해 모든 세부과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인들이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 추진전략에 속한 10개 세부과제에 대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이 자신을 키워줬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청년들은 그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지역이 나를 키워줬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
-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음
 - 가령 지방정부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외 취업 지원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울산발전연구원(2017)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울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해외 취업을 위한 센터 운영’이 2.3%의 응답률을 나타냄
 - * 비록 적은 인원이 응답했지만, 울산시는 이 항목에 주목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역 청년의 국외 취업을 청년층의 지역 유출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충성도를 증진하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생각해볼 수 있음
 - 청년들에게 ‘가장 자기다운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아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을 정립시키면서, 지역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사고 하되 지역에서 꿈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
 -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해외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면, 정책의 수혜자로서 해당 청년은 심리적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는 애향심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것으로도 기대
- 일차적으로는 울산시와 결연한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울산광역시의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 도시 결연 현황(2018년 2월 현재)

단위 : 만 명

도시(국가)	인구	결연 일자	도시의 특징
■ 자매도시			
1. 하기(일본)	5.0	1968. 10. 29.	• 문화·관광·정원도시 • 농·수산업, 관광산업 발달
2. 화련(대만)	11.2	1981. 6. 19.	• 대만의 3대 국제공항 소재 • 관광 및 항구 도시
3. 포틀랜드(미국)	58.3	1987. 11. 20.	• 세계적 무역도시 • 오리건주 경제·상공·교통중심도시
4. 창춘(중국)	772.9	1994. 3. 15.	• 자동차관련 산업 발달 • 문화와 경제의 도시
5. 코자엘리(터키)	108.9	2002. 6. 2.	• 항만도시 • 현대자동차 소재
6. 산토스(브라질)	41.8	2002. 6. 3.	• 브라질 최대의 항만도시
7. 칸호아성(베트남)	116.0	2002. 6. 20.	• 관광산업, 수산업 발달
8. 톰스크(러시아)	48.4	2003. 11. 12.	• 물류중심 항구도시 • 과학중심도시
9. 우시(중국)	472.2	2013. 9. 27.	• 장강 삼각주에 위치 • 산업도시
■ 우호협력도시			
1. 옌타이(중국)	6,502	2001. 11. 8.	• 산동성의 항만도시 • 식품, 방직, 기계산업 발달
2. 니가타(일본)	801	2006. 9. 21.	• 8개의 국제 정기항로 • 일본 북부 교통중심도시
3. 칭다오(중국)	8,964	2009. 8. 3.	• 산동성 동부 • 경제 및 부성급 도시
4. 카라간디(카자흐스탄)	1,375	2010. 4. 22.	• 카자흐스탄 최대주 • 석유, 천연가스, 금·유리 등 지하자원 풍부
5. 구마모토(일본)	740	2010. 4. 26.	• 규슈의 중앙 구마모토현의 남서부 위치 • 구마모토성이 있는 관광도시
6. 바스라(이라크)	1,800	2011. 10. 5.	• 이라크 제2의 도시, 최대 무역항 • 이라크 석유생산량의 85%
7. 몬테비데오(우루과이)	1,327	2012. 6. 11.	• 우루과이의 수도 • 남아메리카의 '작은 파리'
8.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체코)	1,261	2014. 11. 20.	• 현대자동차 유럽 생산 공장 소재 지역
9. 만달레이(미얀마)	953	2016. 5. 2.	• 북미얀마의 경제허브이며 미얀마 문화의 중심지
10. 첸나이시(인도)	8,700	2016. 8. 2.	• 타밀나두 주의 주도(인도 남부 중심도시)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의 개선

-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 설문에서 2-7번 과제에 해당하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사업에 대해 응답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예정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 2)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2022년 이후에는 30%까지 향상하도록 명시
 - 「혁신도시특별법」(제29조의 2)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자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로 설정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 4년제 종합대학교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달리 울산대학교가 유일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울산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5항에 울산혁신도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사람에 대해서도 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
 - * 이는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의 2 제1항의 일부 내용을 울산광역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을 의미
 -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시·도 지역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의 수정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검토할 필요가 있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스펙 무용론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

-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적성을 상실한 채 스펙만 쌓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 청년들이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환경을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청년 대상으로 강연의 기회 제공
-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스펙 대신에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펙을 없애기 위한 문화 확산 사업을 주관·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 멘토링을 통해 취업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스펙 초월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정책이슈리포트

